광주·전남 선수들, 청두 유니버시아드 빛낸다

중국서 28일~8월 8일 열전
양궁 최미선·배드민턴 안혜원
태권도 임금별·육상 조민혁 등
광주·전남 차세대 스타 13명 출전
선수단장에 윤오남 조선대 교수

광주·전남 차세대 스타들이 대거 중국 청두에서 열리는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출전한다.

윤오남 조선대 교수가 대한민국 선수단장을 맡고 김성은(양궁·광주여대) 감독, 고병진(수영·광주시체육회) 코치 등이 지도자로 동행한다. 전남도체육회 진만근(수구) 코치, 김양호(유도·순천시청) 전무 등도 임원으로 선수단과 동행한다.

18일 광주시 체육회에 따르면 세계 대학생들의 스포츠 축제인 2021유니버시아드 대회가 오는 28일부터 8월8까지 중국 청두에서 열린다. 우리나라는 15개 종목 352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애초 2021년으로 대회가 예정됐으나 코로나 때문에 올해 열린다.

광주에서는 최미선(양궁·광주은행), 안혜원(배드민턴·조선대), 박예린(수영·광주체육회), 김대언(펜싱·광주서구청), 정다연·김서경(이상 다이빙·광주시체육회) 등 6명이 출전한다.

태권도 임금별

최미선은 2015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에 광주여대(당시 1년) 재학 중 대표 팀 막내로 출전, 개인전과 단체전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다.

이번 대회에는 대표팀 맏언니로서 금메달에 도전한다. 김서경은 제1회 광주 전국수영선수권대회 스프링 1m 2위, 3m 1위, 2022 제17회 제주한라배 전국수영대회 싱크로 3m 1위 등을 차지했다. 같은 팀 김서경, 고병진 코치와 함께 손발을 맞춰 훈련하며 최고 기량을 펼치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이 청두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출전하는 광주 선수, 임원에게 격려금을 전달한 뒤 선전을 기원하고 있다. 김성은(왼쪽부터) 감독, 고병진 코치,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 김서경·정다연.
〈광주시체육회 제공〉

김성은 양궁 감독은 2012런던(기보배), 2016리우(최미선), 2020도쿄(안산)까지 3연속 올림픽 금메달 선수를 배출한 지도자다.

전남에서는 지역 연고선수 7명과 임원 2명이 출전한다. 정병영·한효민(수구·전남체육회), 임금별(한국가스공사), 이경학(제주특별자치도청·이상 태권도), 조민혁(육상·건국대), 박현승(배드민턴·원광대), 김경무(펜싱·대구대) 등이다.

태권도 62kg급 최강자인 임금별은 메달이 기대되는 유망주다.

2022 한국실업태권도최강전 -62kg 은메달, 2022 국방부장관기 전국단체대항 대회 -62kg 금메달, 2023 한국실업연맹회장기전국태권도대회 -62kg 금메달을 따냈다.

대한민국 선수단장 윤오남 조선대 교수

한편, 광주시체육회는 18일 광주체육회관 접견실에서 전갑수 체육회장 등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양궁 여자대표팀 감독 김성은 등 4명에게 선전을 기원하는 격려금을 전달했다.

전갑수 체육회장은 "두 차례 연기돼 어렵게 열리는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우리나라 대표선수로 출전하는 만큼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광주시민들에게 감동을 선사해주기 바란다"고 격려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

전남과학대 볼링, 대통령기 금 3·은 2 '종합우승'

송세정 대회 3관왕

전남과학대 볼링팀이 대통령기 전국볼링대회에서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사진〉

19일 전남볼링협회에 따르면 전남과학대 볼링팀이 최근 강원도 강릉 강남국민체육센터볼링경기장에서 끝난 제38회 대통령기 전국볼링대회에서 금메달 3개와 은메달 2개를 획득,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남대부 2인조 경기에 출전한 송세정(3년)과 진현규(1년)는 6게임 합계 2908점, 평균 242.3점을 기록하며 배재대(김명섭, 유창현)와 한국체대(한성민, 류호준)를 제치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3인조 경기에서는 송세정, 진현규, 서정민(3년)이 합계 3998점 평균 222.1점으로 은메달을 획득했다.5인조 경기에서는 송세정, 진현규, 서정민, 윤승현(1년), 김동희(1년), 김관욱(1년)이 팀을 이뤄 합계 6464점 평균 215.5점으로 은메달을 수확했다.

송세정은 개인종합 합계 5517점 평균 229.9점으로 개인종합 금메달과 함께 마스터즈 경기에서 도 합계 2391점 평균 239.1점으로 1위를 차지하며 대회 3관왕에 올랐다. /윤영기 기자 penfoot@

광주서석중 검도, 용인대 총장기 단체전 '2연패'

광주서석중학교 검도부가 제26회 용인대 총장기 전국 중·고등학교검도대회 단체전을 2연패했다. 〈사진〉

18일 광주시검도회에 따르면 서석중 검도부는 최근 충남 청양군 청양군민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중등부 단체전에서 형남중을 3-0으로 꺾고 우승했다.

서석중은 지난 대회에 이어 단체전 정상에 섰다.

서석중은 8강전에서 온양용화중을 4-1로 제압한 데 이어 준결승전에서 대동중을 3-0으로 따돌리고 결승에 올랐다.

단체전 우승 주역들은 오승준·채희준·정우민(이상 3년), 김태현·안일웅(2년), 윤찬희·옥하준(1년)이다.

서석중 정우민은 개인전 결승에서 이용주(대동중)에 1-2로 패해 준우승했다.

정우민은 8강전에서 김태인(동평중)을 2-1로 누르고 4강전 공동익(가야중) 2-0 으로 일축, 최종전에 진출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고 김홍빈 대장 구조비용 전액 부담하라" 외교부, 광주시산악연맹 상대 항소 논란

정부가 고(故) 김홍빈 대장 구조 비용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하고도 광주시산악연맹을 상대로 전액 부담을 요구하는 항소에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18일 광주시산악연맹(연맹)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72단독 류일건 판사는 정부가 광주시 산악연맹과 대원 5명을 상대로 낸 구조 비용 등 청구 소송에서 김 대장에 대한 수색 비용 2500만원 100%를 연맹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대원 5명이 헬기를 이용한 구조 비용 4500만원은 대원들이 25%, 정부가 75% 부담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연맹은 법원이 판단한 3600여만원을 부담하기로 결정, 항소를 포기했다.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 부담이 큰데다 승소 여부를 장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김 대장 수색과 대원 구조 비용 등 6800만원을 광주시산악연맹이 부담해야 한다며 항소했다.

피길연 광주시 산악연맹 회장은 "만약 우리가 헬기 비용을 낼 수 없다고 했으면 당시 외교부는 어떻게 했을지 묻고 싶다"며 "당시 베이스캠프에서 스카루드까지 도보 하산이 불가능한 상태도 아니었고 대원들이 요구한 것도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상황에서 통상적인 비용보다 훨씬 큰 금액을 100% 내라는 것은 영사조력법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정부의 항소에 매우 유감"이라며 "광주산악연맹도 애초 입장대로 공익 등반이었기 때문에 국가가 전액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열 손가락 없는 등반가' 김 대장은 2021년 7월 장애인 산악인 최초로 히말라야 14좌 완등에 성공한 뒤 하산 도중 실종됐다.

외교부는 파키스탄 정부에 구조 헬기를 요청해 3차례 띄웠지만 김 대장을 찾지 못했다. 헬기 비용은 당시 회당 2만5000달러였다.

실종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귀환을 기원하는 메시지를 냈고, 숨진 뒤에는 정부가 체육훈장을 추서하기도 했다. 외교부는 1년 뒤 헬기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영사조력법에 따르면 재외국민은 자신의 생명·신체·재산 보호에 드는 부용을 부담해야 한다.

다만 사건·사고에 처해 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울 때는 국가가 부담할 수 있고 위급 상황에 놓여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할 이동 수단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대신 지급하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당구 황제' 쿠드롱 올 시즌 PBA서 못 보나

소속팀과 계약 불발에 출전 제한

'당구 황제' 프레데리크 쿠드롱(벨기에)이 소속팀인 웰컴저축은행과의 계약이 불발돼 20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PBA 전용경기장에서 개막하는 시즌 3차 투어인 하나카드 PBA 챔피언십대회부터 출전하지 못한다.

프로당구협회(PBA)는 웰컴저축은행이 2023-2024 팀 리그 드래프트에서 보호선수로 지명한 쿠드롱과 진행한 PBA 투어 및 팀 리그 계약 조건 협상이 15일 자로 최종 결렬됐다고 18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PBA는 3차 투어부터 쿠드롱의 출전 자격을 제한하기로 했다. PBA는 이번 결정이 '팀에 지명된 선수가 출전을 거부하면, PBA-LPBA 투어 출전을 제한할 수 있다'는 PBA 선수등록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PBA는 선수 개인 투어와 팀 전체가 격돌하는 팀 리그를 따로 운영한다. 팀 리그는 8월 3일 개막할 예정이다. PBA의 한 관계자는 "선수가 개인 투어에 뛰려면 팀 리그에도 출전해야 한다"며 "그러나 웰컴저축은행과 쿠드롱의 팀 리그 계약이 이뤄지지 않았고, 이에 따라 쿠드롱은 개인 투어에도 출전할 수 없게 됐다"고 전했다.

웰컴저축은행은 2020-2021 NH농협카드 PBA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서현민을 쿠드롱의 대체 선수로 지명했다. /연합뉴스

즐거운 문화산책

LOTTE CINEMA | 충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미션 임파서블: 데드 레코닝 PART ONE
2관	엘리멘탈
3관	미션 임파서블: 데드 레코닝 PART ONE, 더 썬
4관	엘리멘탈, 인시디어스: 빨간 문
5관	바비
6관	미션 임파서블: 데드 레코닝 PART ONE
9관	미션 임파서블: 데드 레코닝 PART ONE, 더 썬
7관씨네커플	여름날 우리
8관씨네커플	인시디어스: 빨간 문, 극장판 아름다운 그: 이터널, 그녀가 좋아하는 것은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제 134회 정기연주회
평화를 향한 역동과 진혼
일시 : 2023-07-25(화) 19:3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문의 : 062-415-5403

GAC 재개관 시리즈 - 포시즌Ⅲ「정트리오 콘서트」
일시 : 2023-08-26(토) 17: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문의 : 062-613-8235